

소식지
News Letter

일시천금

2024년 12월 제1권, 제2호

December 2024 Vol 1, No 2



인사말	나영일 / 03
<궁도(활쏘기)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 참관기	김기훈 / 07
활터에서의 생활과 예절-1	김이수 / 12
[느리게 걷는 한양 활터 순례길]을 마치며	김창선 / 16
나의 한복 생활과 활쏘기	홍현도 / 21
활동	/ 25
회원대모집	/ 30

* 표지 사진 - 고구리(高句麗) 무용총 수렵도

펴낸이 나영일

엮은이 변정용

펴냄날짜 2024년 12월 20일

펴냄범위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인사말



나영일(회장)

존경하는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벌써 2024년이 저물어갑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엄청 놀라셨지요? 곧 마무리가 되고 정국이 안정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활쏘기란 말만 나와도 함께 이야기하려 하지 않던 대한궁도협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의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궁도에 대한 애정으로 인하여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궁도역사고증 및 학술대회 용역'과 '궁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활쏘기문화보존회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울산궁도협회 김동욱 전무이사과 집청정 최원석 대표를 비롯한 울산의 궁도인들이 국궁신문 이건호 대표에게 연락하여 반구천 암각화의 활쏘기를 알리는 노력을 하였고, 온각지공사회 정진명 선생이 국궁신문에 답사기를 써서 궁도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8월말 활쏘기문화보존회에서는 반구대 활쏘기 자료 조사를 시행하여 울산 반구대와 천전리의 암각화 수렵도에 있는 활쏘기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 10월에 육군사관학교 김기훈 명예교수가 국궁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궁도인들에게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주 최씨 문중 정각인 집청정과 반구대 사이에 있는 모래톱에서 울산궁도협회의 고헌정 사원들과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들이 '한민족 활의 기원 찾기 반구대 활쏘기 재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청정 최원석 대표와 옷칠 전시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부인이 우연히 정년퇴직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악산의 제연구실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가지 않던 그 연구실을 우연히 나가서 앉아있던 차였습니다. 그러한 인연 덕분에 2022년 2월 4일 저와 함께 김기훈, 최석규, 박근 회원이 통도사에 계신 조계종 종정 성파스님과의 면담을 통해 활쏘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유네스코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울산매일에 제가 '전국체전 성화 채화지, 이대로 좋은가?'란 기고문을 발표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성화 채화지(採火地)를 강화도 마니산에서 울산 반구천 암각화 공간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3일에 성파스님을 다시 찾아뵙고 학술세미나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후원 지도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을 찾다니며 반구천 암각화 궁도대회와 세미나를 시행할 방안을 생각하고, 서범수의원, 이순걸 울주군 군수, 김영철

군의회회장 등의 면담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회 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우리 보존회주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에서 '전통활쏘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울산반구대 암각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동시에 울산궁도협회주관으로 영남궁도인 중심으로 울주군 체육공원에서 '반구대, 활의 시원, 영남지구 궁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궁도대회와 학술세미나에서 서범수의원, 이순걸 울주군 군수, 김영철 군의회회장 그리고 김창순 대한궁도협회장과 황학정에서 활을 내는 벨기에 프랑스와 뽕땅 대사 등이 참석하여 축하 및 격려를 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와 대한궁도협회간에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창순 대한궁도협회장이 울산시립문수궁도장에서 궁도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선사시대 활쏘기 그림 4점이 남아 있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활의 시원(始原)임을 국내 외에 알리고, '(가칭)반구천의 암각화 활쏘기 세계대회' 등을 열어 울산을 궁도의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4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유목민경기대회(5th World Nomad Games)에 활쏘기경기와 학술대회에 우리 보존회 회원 16명과 대한궁도협회 임직원 및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장 등 14명이 참관단을 구성하여 활쏘기대회 등을 홍보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선발대로 먼저간 4명이 카자흐스탄의 옛수도인 알마티에서 고려인 신 안드레이(알마티 시의원, CU 대표)와 고려문화원 김상욱 원장에게 각각 활 2장과 화살 등을 전달하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우리 활을 보급시켜주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는 주 카자흐스탄 조태익 대사와 한국문화원 구본철 원장에게 각궁과 죽궁을 선물하면서 우리 문화원에 활을 전 시하고 가능하면 우리(한국식) 활터를 세워주실 것은 당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와 협력하여 활쏘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펼쳤습니다. 우리 보존회 회원들은 모두 자비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세계유목민경기대회에 참여하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결과, 2024년 9월에 '궁도역사 고증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을 울산연구원이 발주하였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업을 수행하여 11월 23일 울산박물관에서 '궁도(활쏘기)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에 국회에서 '궁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준비작업과 주제발표를 담당하여 궁도인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두 번의 행사에서 우리 활쏘기문화 보존회란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회원들은 발제와 토론으로 그리고 직간접적인 참여로 힘을 보태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없지만, 우리 궁도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정관개정을 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번 소식지에도 몇 분에게 글을 부탁

하니 흔쾌히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월간이나 격월간 아니면 계간지라도 소식지를 발행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께서는 각자의 활터와 계신 곳에서 좀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언젠가 알아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말에 급작스런 계엄소식이 있어 걱정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보존회 회원님들은 2024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며,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1220년 몽골의 칭기즈칸에 의해 폐허가 된 7세기 소그드 왕국 시기에 제작된 아프로시아(사마르칸트) 궁전 벽화는 이 벽화 속에 고구려 사신이 새 깃털을 꽂은 조우관(鳥羽冠)을 머리에 쓰고, 고리 모양 손잡이가 특징인 환두대도(環頭大刀)를 허리에 차고 있는 두 명의 사신(오른쪽)이 그려져 있다.

<궁도(활쏘기) 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 방청기



김기훈(화
랑정)

지난 2024년 11월 23일 울산 박물관에서 열린 <궁도(활쏘기) 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네분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들의 질의 응답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궁도에 관한 이런 대중적인 학술대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발표 내용의 수준 여부를 떠나, 학술대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았다. 이번 학술대회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리고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분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인은 이번 학술대회의 방청기를 준비해 보았다.

1. 논문별 총평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은 <궁도 역사 고증>이라는 대회의 타이틀에 압축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궁도의 <역사>가 아니라 궁도 <역사 고증>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역사 서술이 아니라 특정한 유물이나 문화재 또는 사업을 위한 역사적 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이번 학술대회는 무엇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려고 했을까?

울산연구원장의 축사 속에 이러한 목적이 기대감과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활쏘기의 시원 울산이 국궁 및 활쏘기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활쏘기의 중심지 울산’이 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에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반구대 암각화 속의 활쏘기 그림을 계기로 울산이

우리나라 활쏘기의 시원이며, 한국 활쏘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고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장만이 아니라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이들 대부분의 인사들도 아마 울산이 국궁의 시원이며 국궁 발전의 센터가 될 자격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밝혀주기를 기대하며 참석하였을 것이다. 필자도 이런 기대속에 대회를 방청하였다. 처음 발표된 <궁도 역사의 고증과 과제>라는 논문은 <고증> 기대에 가장 충실하게 답변하고 있었다. 반구대 암각화의 활쏘기는 오십여년 전에 발견되었으나 활쏘기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이렇게 뒤늦게 인식된 것은 최초 발견자가 활을 올라미로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고고학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금은 이 그림들이 활쏘기를 하는 사냥꾼을 묘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7천 여년 전에 그려진 이 반구대 암각화 활쏘기는 그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활쏘기 그림으로 알려졌던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보다 훨씬 오래 전인 선사시대의 유물이며, 따라서 이 유적을 지닌 울산이 우리나라 활쏘기의 시원지라고 말할 수 있음을 <고증> 하였다.

그런데 뒤이어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은 조선 시대와 근대 이후의 활쏘기 역사를 다루고 있어 <고증>과는 무관하였다. 한국의 활쏘기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일 따름이고, 울산 지역의 활쏘기가 이 시대에 어떤 중요한 활동을 하였는지 하는 점은 거의 <고증>되고 있지 않다. 한 발 물러나, 학술 대회의 기획 자체가 처음부터 이 시대는 <고증> 이 아니라 우리나라 활쏘기 역사 일반에 대한 소개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조선 시대를 다룬 두 번째 논문인 <조선시대 활쏘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전략>은 향사례를 부각시키고, 국궁에 내재한 철학적 측면, 수양 도구적 측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전문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국궁을 민간 사정 중심으로만 설명함으로써, 조선 시대 활쏘기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 무과제도에 대한 언급이 소략한 점, 놀이 활쏘기 즉 편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세 번째 발표 논문인 <근대 이후 궁도계의 현황>은 근대 이후 국궁사의 전개 과정을 개관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논문은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적 논문이라기보다는 비전문가의 피상적 개론 수준의 논문이었다. 국궁사를 논하면서 각주에 인용한 참고서적은 대부분이 영문으로 된 연구 성과들이다. 국궁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필자는

토론 답변 과정에서 대한궁도협회의 미래 역할 등 국궁의 발전 방향 분야에서는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논문 저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마지막 발표된 <한국 궁도계의 현재와 미래>와 해당 논문 토론자의 날카롭고 적절한 질문들은 식어가던 이 학술대회의 열기를 완전히 되살려 주었다. 가장 인상깊은 발표요 토론이었다. 국궁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였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 훌륭한 발표가 왜 <역사적 고증>이라는 일견 어울리지 않은 주제 속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만약 이들의 발표와 토론을 울산 문제와 보다 더 직결된 주제 예컨대, '울산 활쏘기 센터화의 과제와 전략' 같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었다면 그들의 능력이 한결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2. 보완 과제 - 제안

울산 프로젝트의 <역사적 고증>은 결국 울산이 국궁의 시원지이며, 국궁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음을 학술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주문이다. 사실상 선사시대에 조성된 반구대 암각화의 발견으로 울산이 국궁의 시원지라는 주장에는 점차 많은 이들이 공감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울산이 그 이후 역사 시대인 삼국-고려-조선-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활쏘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지역이요, 따라서 국궁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필자는 얼른 동의하지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조선 시대의 명확한 중심지였던 서울이 우리나라 활쏘기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주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울산은 서울이나 타 지방이 갖지 못한 강력한 지원 세력을 갖추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상징적인 힘이 현실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울산시가 앞장 서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찰력과 혜안을 지닌 양산장을 하고 싶다.

통도사 종정스님이 그 뒤에서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고 있다. 마침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던 울산의 이해와 국궁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던 국궁계의 염원이 울산에서 반구대를 계기로 일치되고 있다. 울산과 국궁계 모두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만이 아니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치밀한 학술적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울산이 국궁의 센터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이라는 양면에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울산의 활쏘기 역사라는 측면 즉 역사적으로 <고증>이 필요하거나 활용되어야 할 유산 부분만 간략하게 예시해 본다.

조선시대 울산 활쏘기의 유산: 조선시대 울산은 군사적으로 왜적 방어의 최전방이었다.

육군과 수군 사령부 격인 병영과 수영이 울산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대변한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조선 시대의 울산 활쏘기는 군영 활쏘기와 함께 발전하였다. 이와 연관된 유물로 <부북일기>와 인물로서 배익환의 활쏘기가 전해지고 있다. 울산 출신 박계숙, 박취문 부자에 의해 작성된 <부북일기>는 국궁 기록물로서는 최상급의 자료이다. 경상 좌병영의 병사였던 배익환은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 배오중이라 별칭을 받던 그의 훈련장은 좌병영 근처에 있었다 한다. <부북일기>는 울산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고, 박취문의 흔적은 태화강 공원의 한구석에 만회정(晩悔亭)으로 복원되어 있다. 배오중이 활을 쏘던 장소는 사청리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유물과 유적은 반구대와 아울러 어느 지역에서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잠재적 활쏘기 문화 유산이다. 그리고 이들 유적지는 장차 울산 활쏘기 순례지의 토대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 활쏘기의 근·현대사: 갑오경장 이후 한말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시기의 울산 지역 활쏘기는 타 지역과 거의 비슷한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인 1921년에 창립된 청학정은 울산의 활쏘기도 이미 백년 이전부터 계승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최근에는 울산 공원정이 새로운 형태의 활터 문화를 최초로 선보여 주었다. 한 사정에 다수의 클럽이 활동하는 사례의 성과와 과제는 타 지역의 활터들이 예의 주목하고 있는 바이다. 민간 사정들의 스토리로 구성된 울산 국궁의 근·현대사는 그 자체가 울산 궁도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요소이고, 동시에 울산 궁도인들이 울산 국궁 센터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 활쏘기 문화 권역의 확대 : 흔히 정치적 지역권으로 부·울·경을 언급한다. 울산 자체만의 활쏘기 역사가 국궁 센터의 명분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정치 지역권처럼 울산에 더하여 부산과 경주 지역의 활문화를 포함한

활터에서의 생활과 예절-1



義山 김이수(서령정)

우리의 전통활쏘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활터문화가 형성, 정착된 시기가 조선시대인 만큼 일반적인 활터문화는 성리학이 그 근저(根底)에 깔려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사례(大射禮)와 향사례(鄉射禮)이다.

또한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를 기록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활쏘기의 예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군례(軍禮)에 기술된 내용이 그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의식),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관람(觀覽)하는 의식), 강무의(講武儀 : 왕실의 사냥하는 의식), 향사의(鄉射儀 : 해마다 3월 3일(가을은 9월 9일) 개성부(開城府)와 여러 각지에서 행하는 활쏘기 예)가 그것이다. 한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3志 향례지(鄉禮志)에서도 활쏘기의 의식과 예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이렇게 의식을 기반으로 활성화된 활쏘기는 스포츠성과 유희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활터문화를 유지했으며, 활터는 성리학을 기초로 한 격식과 예식이 포함된 문화로 정착하면서 사회생활과도 관통한다.

즉, 사농공상의 계급사회인 당시에 도 격식과 예를 충분히 지키면서 사회생활과 활터생활이 공존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단(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전해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시예종(禮始禮終: 예로 시작하여 예로 끝난다)이 활터생활의 미덕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2000년대 들어 활쏘기를 배우고자 하는 공사들이 늘면서 '활터는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난다(禮始禮終)'는 가르침이 오랜 전통인 것처럼 전해졌다. 아마 활터에서의 예절을 강조하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예시예종'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시예종(禮始禮終)은 17세기 이후 일본의 武道[けん도(劍道 :けんどう)와 茶道(さどう/ちゃどう)] 등의 문헌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일본 사무라이[士]문화의 정점에 있는 일본의 전통문화이다. 즉 우리의 전통문화(활쏘기)를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로 포장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쏘기에서는 '예시예종'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대신할 방도는 있는 것인가? 이에 필자는 중국이나 일본 문화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의 고유문화이자 성리학의 가르침이며, 활터문화에 가득 담긴 '겸양문화(謙讓文化)'가 오래전부터 활터문화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즉, 禮始禮終은 사무라이(士)의 복종, 희생이 핵심이라면, 謙讓은 예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행위로서 선비(士)의 겸손과 사양, 그리고 양보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무라이(士)문화인 예시예종이 아닌 선비(士)문화인 겸양문화가 걸맞다.

기실 구사(舊射) 칭호를 듣는 공사들은 한 번쯤 겸양(謙讓)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겸양이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리학의 큰 덕목으로 겸양지덕(謙讓之德)을 말한다.

겸양(謙讓)에는 겸손과 더불어 예시예종도, 예절도, 거경(居敬)도, 그리고 궁도9계훈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겸양(謙讓)은 관덕(觀德)하고도 통한다. 때문에 오래된 공사들은 겸양을 가르쳤을 뿐, 예시예종은 가르치지 않았음을 필자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겸양을 바탕으로 한 활터예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고의 큰 틀은 『조선의 궁술』에

등장하는 활터의 사풍과 대한궁도 협회의 궁도구계훈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현재 활터에서 공사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풍과도 상통될 것이다.

향후에 연재할 순서는 등정과 활터 생활, 정간과 정간배례, 설자리(사대)에서의 예절, 초시례, 물기때의 예절, 활 낼 때와 연전시의 예절, 살 쥘기와 살 잡는 법, 습사무언과 동진동퇴, 그리고 막만타궁 등으로 연재할 것이다. >|

궁도구계훈

1. 仁愛德行 인애덕행
어짐과 사랑으로 덕스러운 행실을 하고
2. 誠實謙遜 성실겸손
정성스럽고 참되고 실속있게 남에게 나를 낮추어 순하게 대하고
3. 自重節操 자중절조
자신의 품의를 소중하게 하고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키고
4. 禮儀嚴守 예의엄수
예를 차리는 절차와 몸가짐을 엄하게 지키며
5. 廉直果敢 엄직과감
곧고 청렴하며 용감하고 결단성을 강하게 가지며
6. 習射無言 습사무언
활 쏠 때는 말하지 말 것이며
7. 正心正己 정심정기
몸을 바르게 함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고
8. 不怨勝者 불원승자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말 것이고
9. 莫灣他弓 막만타궁
남의 활을 당기지 말 것이다

유도의 4대 덕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검색들을 엄청 많이 하시나 보다.

- 1) 예시예종(禮始禮終)
-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
- 2) 유능제강(柔能制剛)
-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
- 3) 정력선용(精力善用)
- 경해진 힘을 선한 곳에 올바르게 쓴다.
- 4) 자타공영(自他共榮)
- 서로 돕고 베풀며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든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느리게 걷는 한양 활터 순례길]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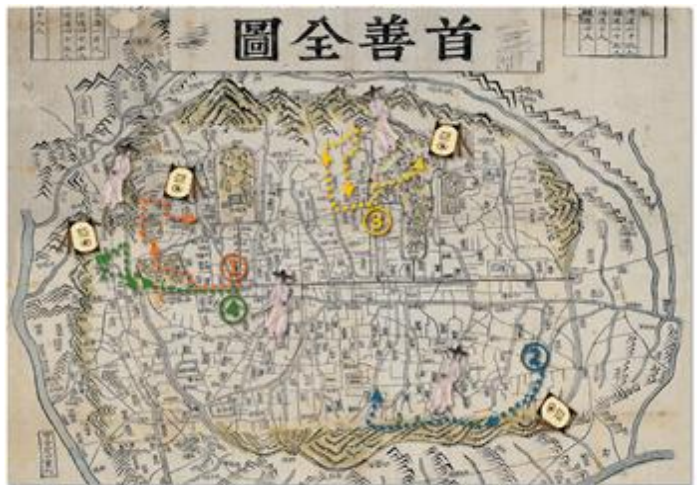
김창선(부회장, 화랑정)

지난 가을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회장 나영일, 이하 "우리 협회")와 전통활쏘기연구회(회장 김상일)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동덕 K-MOOC "활쏘기" 세미나 [느리게 걷는 한양 활터 순례길]이 개최되었다. 이 [순례길] 세미나는 우리 보존회와 사단법인 황학정, 중구궁도협회(석호정)가 공동으로 문화재청의 2023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한 "한양 활터 순례길" 중 일부를 직접 걸어보며 활쏘기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고안된 교육적인 행사였다.

이 [순례길] 세미나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 진행하였다(그림 1).

각 회차별로 지역의 활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 강사의 살아있는 해설을 들으며, 옛 한양 곳곳에 위치한 다양한 활쏘기 관련 유적지를 '느리게 걷는 순례' 형식으로 돌아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림 1) (좌) [느리게 걷는 한양 활터 순례길] 홍보용 포스터와 (우) 수선전도에 나타난 대략적인 순례 코스(① 1회차 "인왕산 길", ② 2회차 "남산 길", ③ 3회차 "궁궐 길", ④ 4회차 "서대문 길")

1회차 "인왕산 길"은 궁궐 서쪽의 우백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백호정 활터가 있던 지역이며, 현재 국궁의 종가 황학정을 둘러볼 수 있는 길이였다.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인왕산 자락의 황학정과 백호정 터를 걸으며 옛 한양에서 오늘날 서울로 이어지는 활쏘기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답사 경로: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들머리) → 훈련도감 터 → 흥화문 터 → 수선전도 → 황학정 옛터 → 성곡미술관 → 무덕문 터 → 북일영 터 → 황학정 국궁전시관 → 황학정 → 등과정 각자석 → 백호정 각자석

→3호선 경복궁역(날머리)

2회차 "남산 길"은 역사적 변화를 많이 겪은 남산 자락의 활터를 돌아보며 한양에서의 활쏘기 문화의 변천 과정을 둘러보는 길로, 현 석호정은 물론 청룡정 각자석과 읍백당 터를 걸으며, 시대는 변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활문화를 마음으로 느끼는 길이였다.

▲답사경로: 3호선 동대입구역 2번출구(들머리) → 남소영터 → 장충단 → 사명대사 탑 → 석호정 옛터(1) → 석호정 옛터(2) → 석호정 → 단풍길 → 청룡정 각자석 → 국치길 → 기억의터 → 읍백당 → 4호선 충무로역(날머리)



(그림 2) 1회차 "인왕산"의 이모저모: ① 빗 속 순례시작(수선전도), ② 황학정, ③ 등과정 표지석, ④ 백호정 표지석



(그림 3) 2회차 "남산 길"의 이모저모: ①사명대사 탑 부조, ②통감관저터, ③석호정 옛터(1), ④석호정 옛터(2), ⑤청룡정 표지석, ⑥나영일 강사

3회차 "궁궐 길"은 현재 창경궁 내 옛 춘당대 일원 단풍길을 걸으며 옛 임금의 활터인 관덕정을 둘러보며 왕과 신하들이 함께 활쏘기를 하던 모습과 무과시험을 치루는 한량들을 상상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인근 북촌의 양반들 활터 취운정 터와 비밀의 정원 끝에 숨어 있는 괘궁정을 찾아 보는 순례길도 흥미로웠다.

▲답사경로: 창덕궁 돈화문(3호선 안국역 3번출구에서 직진 약150m)앞 집결 → 인정전 → 창경궁 정문 → 춘당지 일대 → 관덕정 → 창경궁 정문 → 취운정 터(감사원) → 괘궁정 (중앙고) → 재동초등학교(취운정) → 3호선 안국역(날머리)



(그림 4) 3회차 "궁궐 길"의 이모저모: ①관덕정(추정), ②취운정 터, ③괘궁정(중앙고에서 보는 정경), ④김기훈 강사, ⑤창경궁 춘당지, ⑥재동초 취운정 앞에서

4회차 "서대문 길"은 인왕산 바깥 자락 활터 순례길로 돈의문 역사관에서 경기감영도의 실감나는 활쏘기 동영상 보고,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유적 하나씩 찾아가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경기감영도 속의 그 많던 활터들은 표지석조차 남기지 못한 채 현대화된 건축물들 속으로 사라지고, 한양 활터를 오가던 옛 선현들의 발자취만 가까스로 느껴보는 아쉬움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 순례길에는

국공신문 이건호 대표가 동행하며 부산지역 옛 활터를 소개하였다.

▲답사경로: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들머리) → 훈련도감 터 → 흥화문 터 → 돈의문 역사관(경기감영도) → 금화초등학교 앞(청수관 터, 경기중군영 터, 천영정 터) → 서호정 터 → 영은문 → 모화관 → 노지사정 터(양호거사비, 대신고등학교 내) → 경기감영지 유적전시관(디타워 돈의문 지하1층) → 5호선 서대문역(날머리)



(그림 5) 4회차 "서대문 길"의 이모저모: ①참가자 기념사진, ②아파트가 들어선 서호정 터, ③이건호 강사, ④경기중군영 터, 천영정 터 표지석, ⑤돈의문 역사관(경기감영도), ⑥양호거사비(대신고등학교 내)

이 [순례길] 세미나는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참가자 수를 제한했지만, 매회 차 신청 인원이 초과하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순례길을 마칠 수 있었다. [순례길] 세미나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한양 활터 순례길”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는 “한양도성 순성길(4구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어렵게 개발한 “한양활터순례길”에 대하여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문화유산청 등에서 운영한다면, 전국의 2만

한량들과 활쏘기문화에 관심을 갖는 많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K-활쏘기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K-문화 우수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 하늘 아래를 느리게 걸으며 과거 한양의 선현들이 습사를 했 느끼고 그 흔적들을 살피며 그 뒤에 던 역사적인 공간을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찾으러 떠난 “한양 활터 순례길”, 앞으로도 많은 분과 함께 지속 되어 지기를 빌어 본다.>|



한양도성

나의 한복 생활과 활쏘기



홍현도(석호정)

요즘 경북궁 근처에 가면 화려한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세계로 한류가 확산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복을 입고 궁궐을 찾는 것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한복을 입고 궁궐을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므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한복은 저고리에 바지 또는 치마를 갖추어야 하는데, 바지의 경우 사복 바지를 기본으로 한다. 또 규정상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북궁 인근 한복 대여점에서 빌린 한복으로 특히 대여점에서 빌리는 한복들은 외국인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금박 등의 화려한 문양과 레이스를 달기도 하며, 드레스같이 치마를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생활한복을 대여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긴 고름 대신 매듭 단추에 평퍼짐한 바지이다. 여기에 구김 간 원단과 칙칙한 색상으로 학교의 국사, 윤리, 도덕 선생님의 전용 패션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철릭의 주름을 차용한 치마, 두루마기 코트 등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현대 한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나는 2016년 무렵부터 현대 한복을 입고 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남성용 현대한복이 보편화되기 이전으로 얼마 안 되는 한복 중 손목을 단추로 여미는 셔츠 형태의 한복을 구매하여 입게 되었다. 이후로도 사복 바지, 두루마기 코트 등 다양한 현대한복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옷장이 한복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

나의 한복 생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전통한복을 마련하였다. 박사 졸업을 준비 중이었던 작년 가을 졸업선물로 정장 형태의 현대한복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궁궐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궐에 갈 때 전통한복을 입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에서 현대한복 대신 잘 만든 전통한복을 맞추게 되었다. 다행히 주변에 조선시대 한복을 재현하시는 분이 계셨고 이분에게 부탁드려 바지와 저고리, 소창의, 도포까지 한복을 갖추게 되었다. 이 중 소창의는 영조 대 왕실의 종친을 대표하던 밀창군 이직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내가 가장 즐겨 입는 것이다. 소창의는 좁은 소매, 긴 저고리라는 뜻의 협수장유(夾袖長褙)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조선시대 평민들의 겉옷이었다. 다만 양반들은 도포 안에 받쳐입는 속옷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소창의를 겉옷으로 입는 사람을 '창옷짜리'라고 낮추어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가 소창의를 즐겨 입는 것은 조선시대 실제로 일을 하던 실무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복과 함께 이에 맞는 관모와 신발도 함께 갖추었다. 관은 머리를 끌어올려 상투를 틀 때 쓰는 망건과 이를 가려주는 탕건과 갓을 마련했으며, 버선과 함께 조선시대 가족신과 가장 비슷한 신발로 장만하였다. 이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18세기 조선시대 모습을 갖추었다. 전통한복을 입어 보니 한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근무하고 있는 곳 근처 문화센터에서 재봉틀을 사용한 한복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문화센터에서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하나의 과정으로 가르쳤는데, 저고리를 시작으로 마고자까지 한복을 만드는 것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광장시장에서 한복감을 고르고 재단하고, 재봉을 통해 바지부터 마고자까지 또 다른 한복 한 벌을 마련하게 되었다. 내가 만든 한복은 20세기 이후에 형태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유폐 후 입고 돌아온 마고자와 개항으로 유입된 서양 복식의 하나인 조끼 등으로 이러한 한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리 잡은 것이다.

올해 7월부터 덕수궁에서 일하면서 또 새로운 한복을 장만하게 되었다. 앞선 두 한복은 모두 춘추용으로 여름에 입을 한복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역시 앞선 한복들과 같이 시대를 한정하고 재현한 것으로 1895년 당시 관리들의 관복을 서양 복식으로 변경하면서 평상시 복식은 한복을 입도록 하는데, 바로 두루마기와 전복이다.

두루마기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의복 개혁을 하며 간편하고 실용적인 옷으로 널리 입히게 된 것으로 이러한 두루마기에 소매와 깃이 없는 전복을 입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사모를 쓰는 것이 조선시대 말부터 대한제국기 관리의 일상복이었다. 전통한복을 입어 보니 한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근무하고 있는 곳 근처 문화센터에서 재봉틀을 사용한 한복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문화센터에서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하나의 과정으로 가르쳤는데, 저고리를 시작으로 마고자까지 한복을 만드는 것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광장시장에서 한복감을 고르고 재단하고, 재봉을 통해 바지부터 마고자까지 또 다른 한복 한 벌을 마련하게 되었다. 내가 만든 한복은 20세기 이후에 형태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유배 후 입고 돌아온 마고자와 개항으로 유입된 서양 복식의 하나인 조끼 등으로 이러한 한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리 잡은 것이다. 올해 7월부터 덕수궁에서 일하면서 또 새로운 한복을 장만하게 되었다. 앞선 두 한복은 모두 춘추용으로 여름에 입을 한복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역시 앞선 한복들과 같이 시대를 한정하고 재현한 것으로 1895년 당시 관리들의 관복을 서양 복식으로 변경하면서 평상시 복식은 한복을 입도록 하는데, 바로 두루마기와 전복이다. 두루마기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의복 개혁을 하며 간편하고 실용적인 옷으로 널리 입히게 된 것으로 이러한 두루마기에 소매와 깃이 없는 전복을 입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사모를 쓰는 것이 조선시대 말부터 대한제국기 관리의 일상복이었다.

한복은 단순히 옷만 아니라 장신구를 갖추므로 그 멋스러움이 완성된다. 머리에 쓰는 관모는 갓을 기본으로 양반들이 집에서 쓰던 사방관, 정자관 등이 있으며, 관리가 쓰는 사모가 있다. 이러한 관모는 한복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과 같이 상투를 틀기 위한 망건과 상투를 가리는 탕건을 쓴 후에 관모를 쓰게 된다. 신발 역시도 문양에 따라 태사혜, 운혜, 흑혜, 당혜 등이 있으며 발목까지 오는 목화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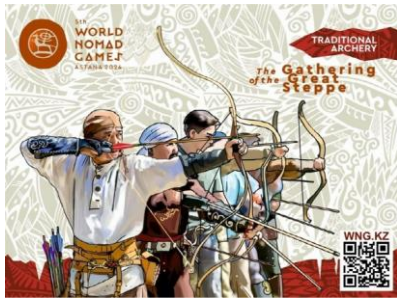
이와 함께 다양한 장신구도 갖추는데, 망건의 끈을 조이기 위한 관자와 관모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턱을 지어주는 풍잠은 망건에 달고, 갓에는 천으로 된 갓끈 대신 대나무, 구슬 등으로 만든 갓끈인 패영이 있다. 이외에도 장도, 부채와 부채에 다는 선추 등 다양한 장신구들로 옷을 단장한다. 현재 내가 갖추고 입는 한복은 18세기

조선부터 현대까지 약 300년간에 걸쳐 변화한 것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한복은 여러 차례 변화했다. 크게는 한복을 만드는 천의 종류와 재료를 시작으로 저고리 여밈의 정도, 소매와 갓의 너비는 물론이고, 양태라고 부르는 갓의 챙 너비, 갓끈을 매는 법 등이 변화였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8세기 이전의 한복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과 달라 놀랄 것이다. 경북궁 인근 한복 대여점에서 빌려주고 있는 한복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복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궁궐 한복 대여점에서 제공되는 한복은 훗날 기록에 외국인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여용 한복이라고 기록되지 않을까 한다. >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

1. 세계유목민경기대회 참가(2024.09.08.-2024.09.13.)

활쏘기문화보존회 선수단 16명은 지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5회 세계유목민경기대회(5th World Nomad Games)에 참가하였다. 세계유목민경기대회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 대회다. 역사적으로 유목민의 민속경기에 기반을 둔 이번 대회에 전세계 83개국 약 2,500여명이 참가하여 전통 활쏘기를 비롯하여 21개 종목의 경기대회가 열렸다.



2024 세계유목민대회 전통활쏘기 참가자 기념촬영

남자 6명(변정용, 한용진, 지동철, 이헌정, 송윤중, 오진병), 여자 4명(문미숙, 박민정, 양세희, 서정화), 코치 2명(이동보, 권오정), 심판 1명(주동진) 및 학술대회 3명(나영일, 박근, 김창선)이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선발대와 본진이 각각 나누어 출발하였다. 변정용 회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김창선 부회장은 따로 선발대와 합류하였다. 선발대(나영일, 한용진, 박근, 지동철)는 카자흐스탄의 옛수도인 알마티에서 고려인 신 안드레이(알마티 시의원, CU 대표)와 고려문화원 김상욱 원장에게 각각 활 2장과 화살 등을 전달하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우리 활을 보급시켜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는 양평정의 이동섭 접장(전 석탄공사 감사)이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한인회)와 만나 석탄 전달행사를 기획하였기에 활쏘기문화보존

회에서 함께 동참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에서 우리 활쏘기 문화보존회와 함께 카자흐스탄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들과 같이 연락처를 공유하고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별도로 시행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통 복장과 전통 활쏘기 도구 만을 사용해야 한다. 활쏘기 대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독일,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스페인, 이탈리아, 예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미국,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칠레, 세르비아, 중국 등 33개국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였고, 총 178명의 선수(남자 118명, 여자 60명)가 경쟁하였다. 기본적으로 1개국에서는 남자 6명, 여자 4명, 코치 2명, 심판 1명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선수 1명과 임원 1명이 출전한 국가도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선수와 심판 모두가 참여한 국가는 10 여 개국으로 대략 250여명 규모의 대회였다. 처음 참가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박민정 회원의 16강 진출이 최고의 성적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는 주 카자흐스탄 조태익 대사와 한국 문화원 구본철 원장에게 각궁과 죽궁을 선물하였다. 조태익 대사의 제안으로 대사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화원에 우리 활을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하기로 하였다. 구본철 원장은 경기장에 들러 선수들을 응원하였고, 그곳에서 전달식을 하였다.

전체 모임에서 내년에 열리는 울산세계 민족궁대회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동보(30만원), 나영일(100), 전시라(20), 김성민(30), 김창선(10), 장안편사회(20), 공윤식(10), 한용진 훈련식대 및 개량궁 2장

및 화살찬조, 조영석명궁 죽궁, 지동철훈련식대 및 개량궁 2장 및 화살, 문미숙간식, 정재성간식, 고영환명궁이 각각 각궁을 찬조하여 대회참가의 의미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

2. 국가유산청 전승공동체 사업 지원 실패

국가유산청의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의 주도적·자율적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향사례의 현대적 복원과 재현"이란 이름으로 충청북도와 충주시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본 사업은 활쏘기문화보존회의 주도로 성균관유도회충주지부(충주향교), 세계무술연맹과 같이 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사회에서는 내년에도 같은 주제로 다시 신청하기로 하였다.

3. 궁도역사 고증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

대한궁도협회와 울산연구원의 주도로 '궁도역사고증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을 활쏘기문화보존회 차원이 아닌 회장이름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들의 발제와 토론 및 자문 등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추후 대한궁도협회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을 위한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보고 형식으로 11월 23일에 울산박물관에서 "궁도(활쏘기)고증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4. 이사회 개최

11월 23일, 울산 브라운도트호텔에서 나영일회장, 김창선부회장, 김이수 부회장, 그리고 박근 이사(참석하였으나 일찍 이석) 및 주동진감사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최석규, 한용진 이사는 위임하였다.



학술대회 기념촬영



학술대회전경

5. 궁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11월 25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궁도진흥법” 제정을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전경

6. 기타

9월 18일 박현우 장모상, 12월 9일 김종훈 이사의 모친상에 조화를 전달하였고, 10월 2일 성파스님 전시회와 한용진 이사의 서울시 평생교육원장 취임 축하난을 각각 전달하였다.>|

회원 대모집

1. 활쏘기문화보존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새롭게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2. 주위에 활쏘기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홈페이지 (http://kacs2020.com/bbs/board.php?bo_table=0501)에 들어가 먼저 로그인한 후, "자료마당"에 들어가 "각종서식"에 있는 "입회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음, 이동보국장(010-6562-31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일시천금 2024년 12월 제1권 2호

